



문화예술 공유주택

시소 프로젝트

부암동 시소 프로젝트

문화예술 공유주택

사업명	문화예술 공유주택 '시소 프로젝트' 더 알아보기>>
주소	종로구 부암동 252 (창의문로 3길 9)
대지개요	대지면적 327㎡(99py), 건축면적 144.28㎡(43.64py)
건물개요	다가구주택 지하 1층 / 지상 2층
착공/준공	2016. 3. 2. / 2017. 3. 16.
HISTORY	본 프로젝트는 한국사회투자 소셜하우징 융자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였다. 대상지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부암동에 위치해 있다. 부암동은 2004년 기반시설 확충 및 규제사항 완화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이로 인한 개발 위축으로 대상지 주변은 신축이 진행되지 않았다. 조각가, 학자, 연극 연출가 등 다양한 문화적, 예술적 배경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나 실제적 교류는 거의 없는 편이었다. 대상지는 오랫동안 가건물 형태로 유지되었으며, 동네 주거환경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참여	자금: (재)한국사회투자 소셜하우징 기금 융자 기획: 아이부키(주) 마스터 아키텍트: 이정섭*(내촌목공소) 설계: 건축사무소 ADO 시공: 채재호(동경건설) * 현대건축의 문제로 지적되는 그리는 건축drawing architect이 아닌, 짓는 건축making architect을 구현하는 대표적 작가. 한국건축 미학을 내재화하여 현대적인 삶과 공간으로 승화해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
한국적 정취와 현대적 세련미가 공존하는 곳,
부암동에 터를 잡은 아름다운 공동체주택

—
단풍마루와 옥상마당, 살롱과 계단실을 열어
지역에 적극적으로 손을 뻗는 새로운 형태의 공유주택

부암동 지역자원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고즈넉한 마을

부암동은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 세 개의 산으로 둘러 쌓인 골짜기에 자리 잡은 마을이며
경복궁 서촌에서 신영동과 평창동, 홍은동을 연결하는 자하문 터널 위에 위치해 있다.



부암동 지역자원

오래된 서울, 부암동

부암동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 하천을 중심으로 길이 발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건물들은 길을 따라 다방향적으로 지어 졌으며, 필지 분할방식의 일방향적인 건물들의 양상과 확연히 대조된다.



이는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옛 모습과 맥락을 같이 한다. 중심지 개발에 편입되지 않은 부암동의 입지적 독립성으로 인해 부암동은 전통도시 서울의 구조적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발생적 특징은 현대 도시에서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다.



부암동 지역자원

안평대군과 흥선대원군이 쉬다 간 곳

안평대군의 별장 무계정사는 당대 문사·정치가들과 이상향을 논하고 풍류를 즐겼던 곳으로 전해진다.

조선시대 부암동은 실학과 문학에 밝아 실용성과 멋을 함께 갖춘, 신지식인 중인들이 모여 살던 동네였다.



부암동 지역자원

윤동주 시인과 추상화 거장 김환기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곳

윤동주는 연희전문학교 재학 시절 인왕산을 산책하며 별 헤는 밤, 자화상, 쉽게 씌어진 시 등 대표작을 완성했다.

『운수 좋은 날』로 유명한 소설가 현진건, 한국 추상화 거장 김환기 등 부암동 곳곳에는 예술가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



윤동주문학관



환기미술관



윤동주문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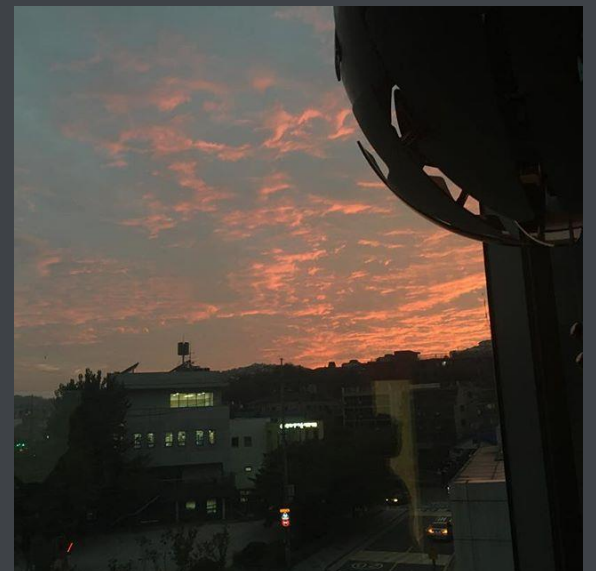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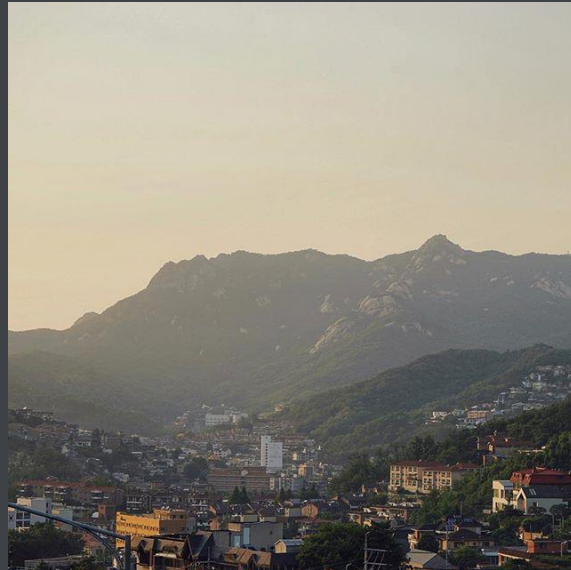


서울미술관

부암동 지역자원

친구와 함께, 연인과 나란히 걷는 부암동 골목

백사실계곡과 북악스카이웨이, 윤동주문학관을 비롯한 크고 작은 갤러리와 카페, 숨은 맛집까지
부암동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일상의 멋과 분위기에 이끌려, 많은 사람들이 산책코스 겸 데이트코스로 찾고 있다.



단독주택이 공유주택으로 되기까지

부암동 제1종지구단위계획

건폐율 50%, 용적률 100% 이하, 조경면적 20% 이상
지하층 노출 부분은 1개층 이하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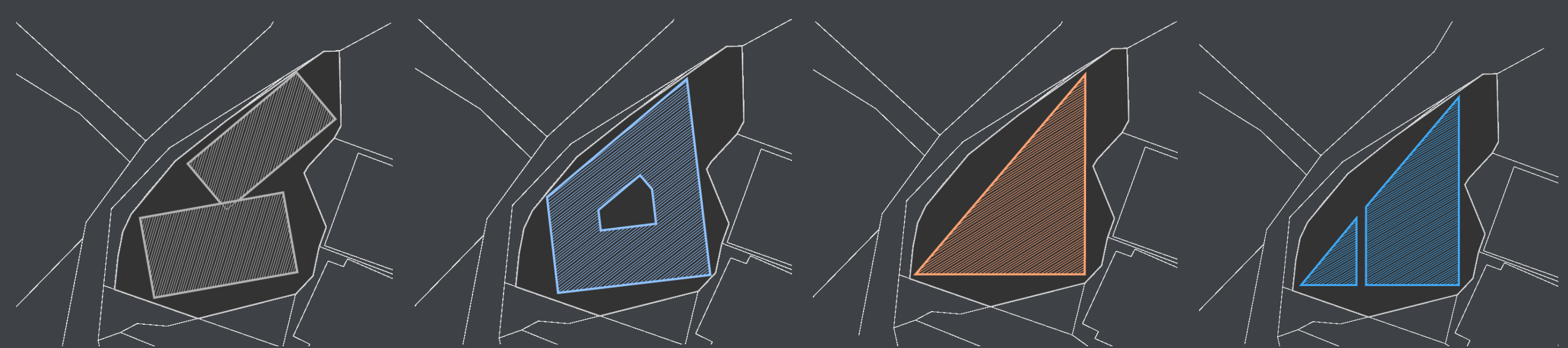
보호구역 경계지표에서 높이 3.6m를 기준하여 양각 27도 선 이내

종로구 심의규정

부암동 일대 단독주택은 경사지붕으로 계획하고, 경사각도 3/10 이상 7/10이하로 계획



특별한 공간에서 더 자연스러운 삼각형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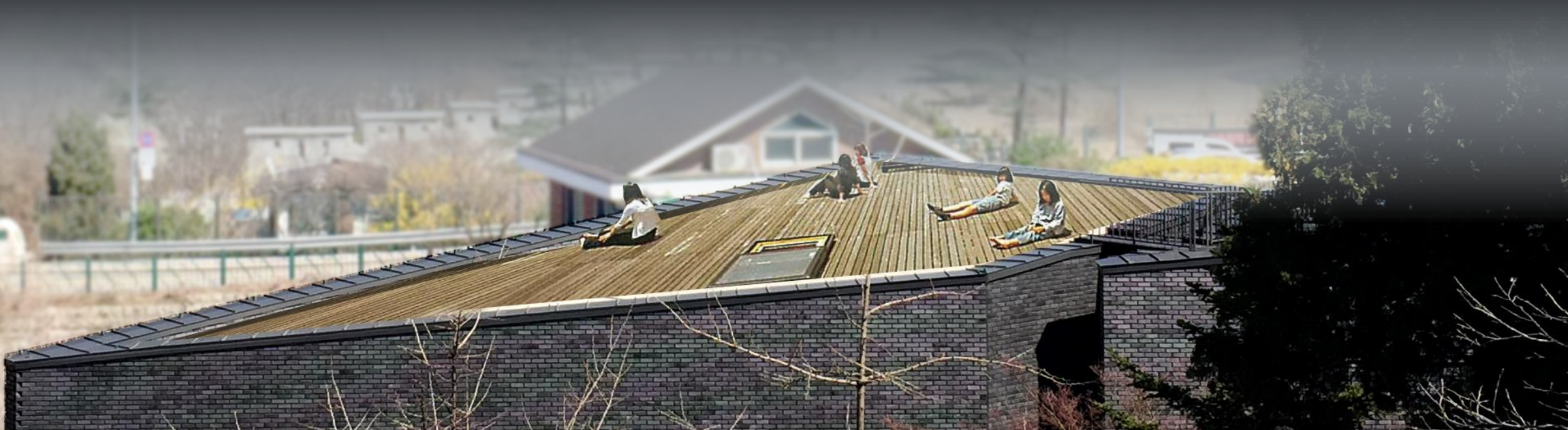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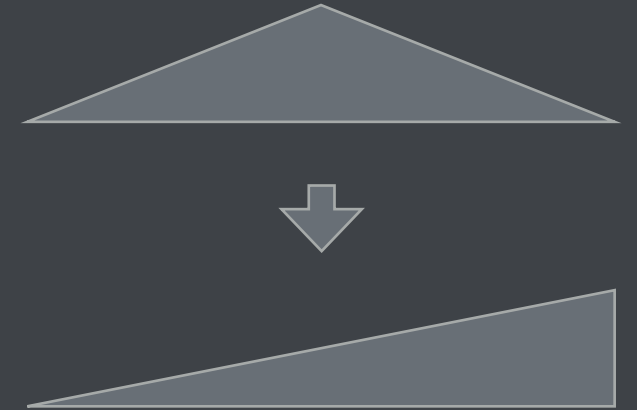
삼각형은 그 자체로 정체성이 강한 기하학이다. 전 세계적으로 삼각형으로 지어진 건물은 많지 않다.
주변과 조화로운 자연스러운 삼각형 건물은 더욱 드물다.
부암동 지형과 다방향적인 대상지 주변 공간환경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삼각형이 공간환경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대응하는 최적의 형태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소통하는 공유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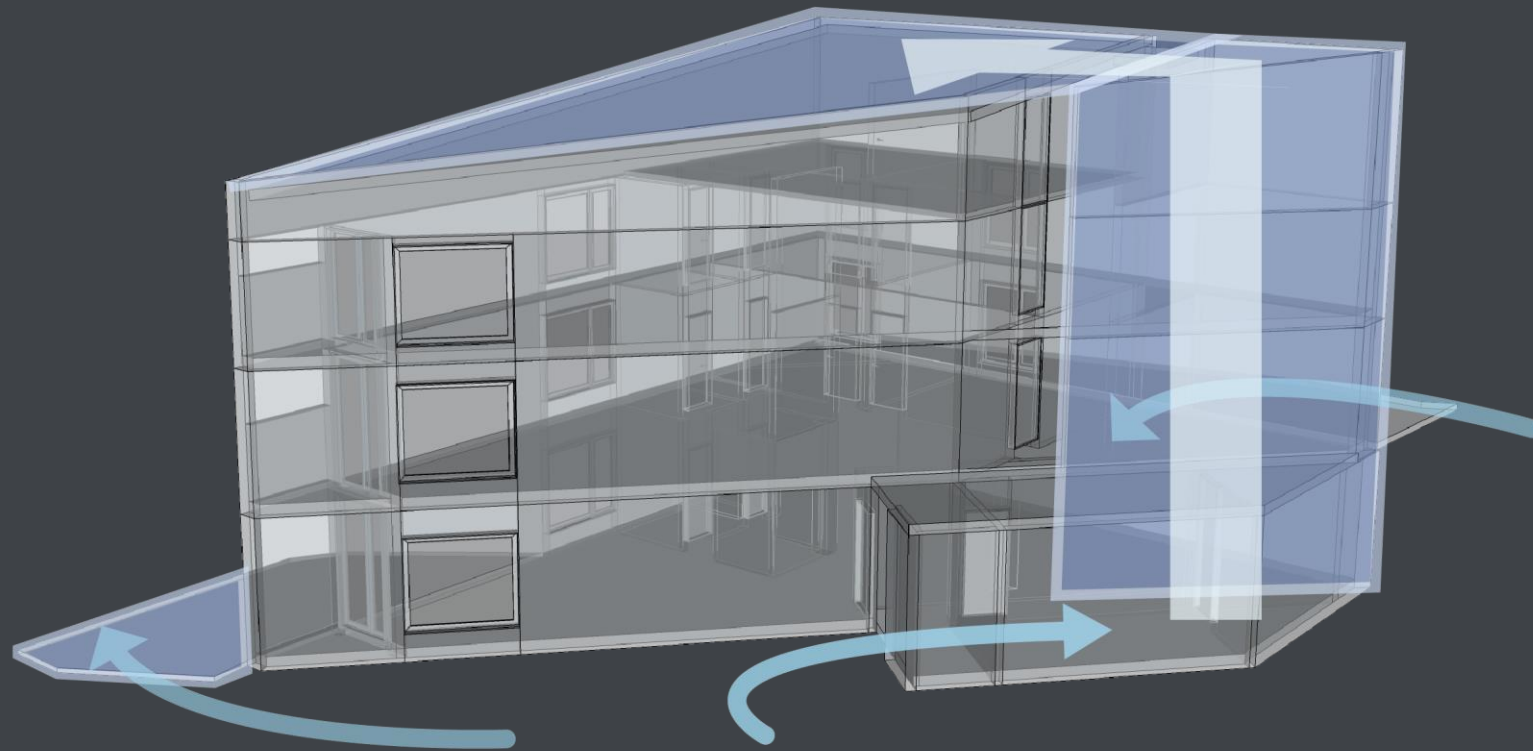
자연과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옥상마당

인왕산과 북한산을 바라보고, 북악산 밑에 자리 잡은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본 건축은 옥상을 활용할 때 경관이 탁 트이면서 자원 가치가 높아진다. 하지만 대상지 건축의 의무사항인 경사지붕은 물리적으로 옥상을 사용하기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우리는 일반적인 양방향이 아닌 일방향 경사지붕으로 이를 해결하였다.

파리의 퐁피두 광장, 뉴욕의 센트럴 파크 등 경사면이 공공공간으로 사용되는 사례는 많다. 여러 사람이 한 방향으로 앉는 것은 그 자체로 강한 공간적인 특징을 가진다. 마주 보고 이야기할 때보다 같은 방향을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편한 순간들이 있듯이, 한 방향으로 경사진 큰 지붕에는 마을마당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길에서 연결된 공유주택



공유주택은 사람들에게 공간을 때에 따라 선택적으로 열 수 있는 건축적 연결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건물 내부에 있는 계단실을 외부로 끄집어 내기 위하여 건물을 둘로 가르고 계단실을 건물에서 독립적으로 분리해 지역과 공유하는 형태로 계획했다.

이는 건물의 계단실을 지역에 공유공간으로 내놓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건물의 옥상을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길에서 연결된 마을 마당으로 기능하게 한다.

